

집값 하락세 속 광주 주택연금 가입자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신규 가입 171건으로 전년 대비 46.15% 증가 연금지급액 123억으로 53.75% 급증...전남 72명으로 '두 배' 부동산 침체 영향 미친 듯...집값 더 떨어지기 전 가입해야 유리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광주·전남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7건에 비해 46.15% (54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앞서 2021년 1~5월 주

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7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3배 (131.08%·97건)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지역 역시 올해 1~5월 가입자 수가 72명으로 전년 (36명) 대비 두 배 (100%·36명) 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2021년 209명에서 지난해 314명으로 50.23% (105명)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113명에서 135명으로 19.46% (22명) 늘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연금 지급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 1~5월 광주지역 연금지급액은 1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억원으로 53.75% (43억원) 급증했다. 2년 전인 2021년 같은 기간 (63억원)에 비해서는 95.23% (6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남의 연금지급액도 올해 32억1000만원으로 전년 (21억1000만원) 52.13% (11억원) 늘었다.

이처럼 광주·전남에서 주택연금이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해당 주택에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기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집값이 조금이라도 비쌀 때 주택연금이 가입해야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 역시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집값은 최근 전국적인 집값 반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0.02%에 이어 0.02% 오르며 상승폭 유지했다.

하지만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다. 전주(-0.06%)에 비해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집값이 5.42% 하락하는 등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전남 집값도

0.06% 떨어지는 등 올해 -4.92%를 기록 중이다.

집값 반등을 잡지 못하면서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른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다.

이밖에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5년이 넘으면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제법 입소문도 난 데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를 위한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 역시 가입자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 금융권 관계자는 "직장을 은퇴한 퇴직인가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며 "주택연금이 퇴직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입자 증가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전통시장 어려움 장금이가 치유"

말바우 시장 등 4곳과 결연식...시장 활성화·금융사기 예방 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일 금융사기 예방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금융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장금이 결연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광주·전남 4개 지역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와 금융원이 함께하는 '장금이 결연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결연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 4개 전통시장(광주 말바우시장, 광주 대인시장, 목포 자유시장, 순천 웃장) 상인을 위한 금융사기 대응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신속한 보이스피싱 대응과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포용금융센터 대출 실행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금융사기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푸드마켓 새 단장 이벤트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푸드마켓 리뉴얼 오픈 1주년을 기념해 할인 행사 중인 과일과 신선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7일까지 일별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모든 고객에게 전복과 복숭아, 한우 등을 한정 할인판매 하며, 유료 서비스인 '신세계 프라이م 서비스' 회원엔 체리와 양념 한우불고기, 삼겹살을 특가에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대기업집단 시총 350조 증가 에코프로그룹 12조→70조원

리더스인덱스 분석...삼성전자 포함 삼성그룹 98조 늘어

주식 시장 훈풍 속에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350조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차전지와 관련된 포스코그룹과 에코프로그룹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대기업 집단 중 상장사를 보유한 73개 그룹의 338개 상장사 시총을 분석한 결과 7월 28일 증가 기준 1773조9550억원으로 연초인 1월 2일 (1423조 7366억원)보다 350조2184억원 (24.6%) 증가했다.

73개 대기업 집단 중 44개 대기업 집단의 시총이 증가했으며 29개는 감소했다.

시총 기준 대기업 집단 순위는 1위 삼성그룹, 2위 LG그룹, 3위 SK그룹, 4위 현대그룹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주 주가 폭등에 포스코그룹이 6위에서 5위, 에코프로그룹은 15위에서 6위로 각각 올랐다.

포스코그룹 6개 상장사 합산 시총은 연초 41조 9388억원에서 112조4911억원으로 70조여원 (168.2%) 증가했다.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에이치엔을 합친 에코프로그룹 시총은 연초 12조5965억원에서 70조5871억원으로 58조원 가까이 (460.4%) 불어났다.

반면, 올해 초 시총 5위였던 카카오그룹은 6위로 밀려났다. 셀트리온그룹(7위→9위), 네이버그룹(8위→10위) 등도 순위가 하락했다.

이 기간 분석 대상 기업의 시총 증가분 중 78%인 272조9293억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기업 10곳에서 발생했다.

연초 이후 금액 기준으로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이다.

삼성 17개 상장사 시총은 518조824억원에서 616조3197억원으로 98조2373억원 (19.0%)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시총 증가분이 90조 1437억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시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그룹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다. 연초 10조7702억원에서 4조4692억원으로 6조3010억원 (58.5%) 줄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얼굴

"지역 중기 효율적 자금 지원하겠다"

홍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으로 홍철(사진) 전 목포본부 본부장이 취임했다.

홍 신임 본부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조사국과 금융안정분석국, 금융결제국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금융공학 석사학위를 받고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홍 본부장은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했으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평가를 받는다.

홍 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과 지역경제 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대 은행 가계대출 세 달 연속 증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1조4868억 늘어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새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대출 금리가 최근 다소 올랐지만, 부동산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불어나는 모양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으로 6월 (678조2454억원)보다 9755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5월 (+1431억원), 6월 (+6332억원)보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12조8875억원)이 1조4868억원 불었다.

지난 6월 (+1조7245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작지만, 5월 (+6935억원)보다는 많았다.

다만 개인신용대출(잔액 108조6828억원)은 2462억원 감소했다. 1년 8개월 연속 줄었으나, 감소 폭은 6월(-7442억원)보다 축소됐다.

기업대출의 경우 7월에도 6조5790억원 (732조3129억원→738조8919억원)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잔액 612조6824억원)이 3조5811억원, 대기업 대출(잔액 126조295억원)이 2조9979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67.07(+34.49)
↑ 코스닥	939.67(+3.70)
↓ 금리(국고채 3년)	3.647(-0.034)
↑ 환율(USD)	1283.80(+9.20)